

캠 호화주택 숨은 범죄조직...“대사관 3km 거리에 한인 감금”

한국인 갇혔다는 고급 아파트·주택 가보니...문신 조직원들·버스 등 대형차량
“대사관은 ‘당장 조치 어렵다’ 답변, 현지 헌병은 수고비 요구”...“교민들 분통”

“바로 저기에 한국 청년들이 갇혀있다는 건데...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한다는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오후 2시께, 캄보디아 프놈펜 한 고급 아파트단지를 올라다보며 14년 차 교민 A씨가 한숨을 내쉬었다. 특수전사령부 장교 출신인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갇힌 한국인 10여명을 구조해왔다.
그는 지난 19일 한 캄보디아인으로 부터 “젊은 한국인 8~9명이 아파트와 주택에 감금돼있다”며 “사 무실에는 10대 안팎의 컴퓨터가 놓여있는데 하루에 무조건 4~5명은 폭행당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중국인·한국인 ‘보스’와 중간관리자 등 4명이 조직을 이끄는 데, 이달 초 캄보디아 당국의 단

속이 강화되자 아파트와 주택 등 세 곳으로 쪼개져 은신처를 옮겼다는 것이다.
A씨는 “언론에 보도된 대단지들은 폐쇄하고 조직원들이 국경을 넘었으나 아직 많은 소규모 조직이 호화 주택단지에 숨어 감시의 눈이 약해 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A씨에게 숙소 주소와 방 호수를 알려주며 “매일 맞으면서 평평 우는 청년들이 너무 불쌍해서 한국 경찰들이 꼭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고 한다.
기자가 A씨와 함께 제보자가 지목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보니 문신이 가득한 중국인 추정 남성 3명이 ‘매콤강 류’ 수영장에서 체력 단련을 하고 있었다.

2019년 중국 자본을 들여 지어진 이 아파트는 54층 규모로 방 일부가 관광객을 위한 콘도로 사용된다. 로비에는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어 카드 키가 없으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였다.
제보자가 지목한 숙소 베란다에는 빨랫감이 건조대에 널려있어 누군가 최근까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국인 피해자 2~3명과 보스들이 머물고 있다는 고급 주택 앞에는 다른 집들과 달리 일본제벤차량과 외제 소형 버스가 주차돼있었다. 대사관에서 3km 떨어진 이 주택은 단지 안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했다.
A씨는 “이들 차량에는 20명 안팎이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들을 운반하려는 용도로 대형 차량을 준비해놓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A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 22일 오전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

렸으나 대사관의 반응은 뜻밖이었다고 한다.
“신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당장 조치하기 어렵다”는 대사관 측의 답변에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한국인이 갇혀있다고 하면 허위제보라고 해도 당장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대사관은 피해자가 직접 위치와 연락처, 건물 사진, 여권 사본 등을 첨부해 신고해야 현지 경찰에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A씨는 현지 헌병대와 직접 접촉해 구출을 시도했다. A씨가 대사관 관계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대사관이 도을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 신변이 걱정된다” 등의 다소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양국 관계가 악화하며 헌병대마저도 ‘한국 정부가 요청하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 없다’며 출동을 고사하고 있다. 일부 헌병대 간부는 한국인 구출에 수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A씨

는 속만 태우고 있다.
A씨는 “국정감사에서도 정부 당국자들이 잘못된 게 없고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일관하며 ‘말장난’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이 모습을 지켜본 교민들 또한 매우 분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몇 명을 추가한들 이렇게 해서는 무엇이 바뀌겠느냐”며 “(범죄조직이) 숨어버리면 더 잡기 힘들 텐데 현지 경찰과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이 필요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한국대사관은 A씨에게 제보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묻는 등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대사관은 연합뉴스 질의에 “이미 조치 중인 사안이나 상세 내용을 공유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신고 접수 요건에는 맞지 않지만 현지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인질 수색 팔레스타인인들이 26일(현지시간) 가자 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하마드 시에서 이스라엘 인질들의 시신을 수색하는 이집트의 기계와 노동자들을 지켜 보고 있다. /AP=연합뉴스

‘곰 습격’ 日아키타현, 자위대 파견 희망...“자체 대응 한계”

올해 일본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곰의 습격에 의한 인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아키타현의 지사가 자체 대응에 한계를 맞고 있다며 자위대 파견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즈키 겐타 지사는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글에서 “곰에 의한 인적 피해가 계속되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됐다”며 “현 상황은 지자체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곰 퇴치를 위한 자위대 출동 규정이 없어 통상의 재해 파견처럼 간단하지는 않겠지

만 자위대 파견 검토를 요청하고자 조만간 방위성을 방문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아키타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8일까지 곰의 습격에 의한 사상자는 54명(사망자는 2명)이 발생해 지난해 1년간의 11명을 크게 넘어섰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마을에 나타난 곰에 의한 피해가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 아키타현이 올해 집계한 곰 목격 보고 건수가 8천44건으로, 작년 1년간의 약 6배에 달하는 가운데 10월 중 목격 건수는 전체의 절반인 4천154건을 차지했다.

전날에도 아키타현 북부 가즈노시 집마당에서 85세 여성이 곰의 공격을 받아 머리를 다쳤다.
현정 소재지인 아키타시 중심부에 있는 아키타역 주변 공원에서는 28일부터 이틀간 곰 목격 신고가 잇따라 아키타시가 공원 이용을 중단시켰다.
또 지난 20일에는 아키타현 유자와시 중심가에 나타난 곰이 남성 4명을 공격했다.
그 뒤 이 곰은 민가에 들어가 있다가 약 120시간이 지난 25일 이른 오전에야 상자형 뒷에 포획됐다. /연합뉴스

루브르 보석 절도 용의자 2명 체포

절도 전과 있는 30대 남성들

해외 도주 불잡혀...도난품 회수 아직

지난 19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침입해 왕실 보석류를 훔친 용의자 중 2명이 체포됐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에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25일(현지시간) 오후 용의자 2명을 조직적 절도 및 범죄조직 결성 혐의로 체포해 구금했다. 사건 발생 6일 만이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 중 한 명이 알제리로 도주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심야에 긴급 작전을 펼쳤다. 이 남성은 오후 10시께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체포됐다.
수사 당국은 파리 북쪽 외곽 센생드니에서도 다른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 이 남성 역시 아프리카 말리로 도주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두 남성 모두 센생드니 출신의 30대로 한 명은 프랑스 국적자, 다른 한 명은 프랑스-알제리 이중 국적자로 파악됐다.
이들 모두 절도 전과가 있으며,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당국은 의심하고 있다.
로르 베귀오 파리 검찰청장은 언론 보도 후 보도자료를 내 “수사관들이 25일 오후 체포 작전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며 “체포된 남성 중 한 명은 루아시(샤를드골) 공항에서 출국하려던 참이었다”고 밝혔다.
베귀오 청장은 구체적인 체포 인원은 공개하

지 않았다.
그는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 정보를 서둘러 공개한 관계자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약탈당한 보석들과 모든 범죄자 검거를 위해 투입된 100여명 수사관의 노력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아직은 어떤 세부 사항도 밝히기엔 시기상조”라며 “추후 추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절도범들은 지난 19일 오전 루브르 박물관 내 왕실 보석 전시관인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7분 만에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도난당한 보석들의 가치는 약 1천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외부 감시 카메라가 없는 갤러리 외부 벽에 사다리차를 대고 갤러리가 위치한 2층에 접근한 뒤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입했다.
절도범들은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여러 증거를 남겼다. 전문 절단기 2대, 절단용 토치, 노란색 조끼, 장갑, 헬멧, 무전기 등을 버렸으며 이 물품들에서 증거 채취가 이뤄졌다. 절도범들은 급하게 도망치느라 나폴레옹 3세 황제의 부인 외제니 황후의 왕관도 떨어뜨리고 갔다.
수사 당국은 이들 물건에서 DNA, 지문 등 150건 이상의 증거물을 채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절도범들의 신원을 추적해 왔다.
25일 체포된 용의자 중 한 명도 DNA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박물관 내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지도자 1·2급과정
교육 희망자 모집

교육과정			
2 급 지도자 과정	28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1 급 지도자 과정	36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초급완성반과정	12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15회	1:1지도/3회 사전예약
초급원포인트과정	6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6회	1:1지도/2회 사전예약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합격시까지 그 외 비용 일체 없음
※ 접수 즉시 이론교재 및 예상문제지 배송 실기실습/실내실습장 합격시까지 무료교육
교육시간 평일(토)오전 09시~ 오후 19시까지(일)/휴무
접수문의 T. 062-369-0070 M. 010-9163-7897
접수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772601-01-794141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

CMYK